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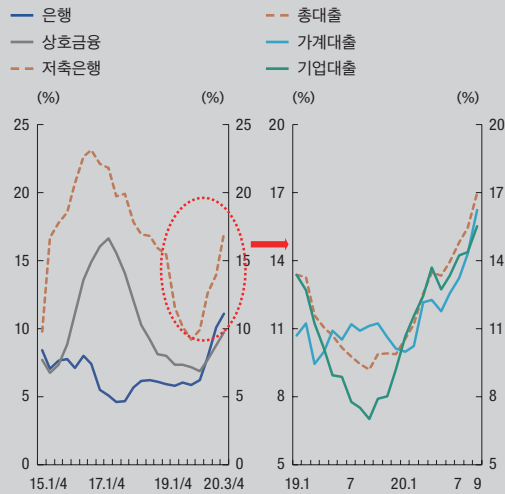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은 업계 구조조정¹⁾이 마무리된 2015년 이후 여타 금융업권보다 높은 대출 증가율(15~19년중 연평균 16.7%, 은행 6.2%, 상호금융 10.3%)을 보였다.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73.2조원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최대 수준(10년 5월말 65.5조원)을 10년만에 상회하였다. 저축은행 대출의 빠른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²⁾를 바탕으로 한 견조한 수신 증가에 기반한다. 저축은행 수신은 2015~19년중 연평균 15.3% 증가하여 여타 금융업권(은행 6.3%, 상호금융 8.3%)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19년중 6.7% → 20년 9월말 10.1%)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9.9% → 17.0%). 차주별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하에서는 저축은행의 최근 대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업권별 대출 증가율¹⁾ 저축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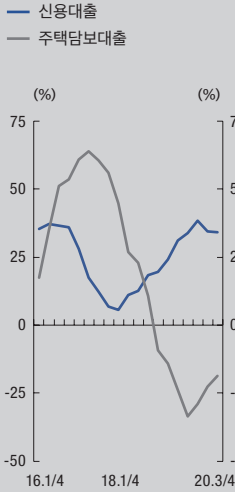
가계 :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20년 9월말 29.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은행 9.4%, 상호금융 -1.7%)하였으며, 특히 신용대출(18.6조원)이 34.1%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³⁾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⁴⁾ 확대 방침⁵⁾에 따라 저축은행이 관련 대출 영업을 강화⁶⁾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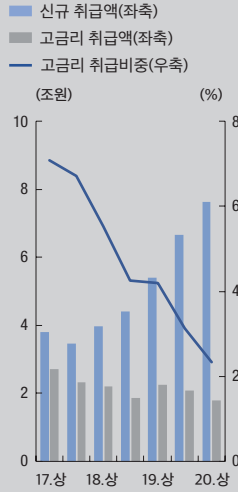
1) 저축은행 수는 PF대출 대규모 부실 등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0년말 105개에서 2015년 1월말 79개까지 감소한 후 최근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2015년 1월~2020년 9월중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1년 정기예금)는 2.28%로 은행(1.70%) 및 상호금융(1.85%)에 비해 각각 58bp, 43bp 높은 수준이다.
 3)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중 -33.6%, 2020년 9월말 -18.7%(전년동기대비)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4)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달리 정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가중평균금리 16% 이하(최고금리 19.5% 미만), 4등급 이하 차주에 대출 70% 이상 공급 등을 충족 시 중금리 대출로 간주한다.
 5) 관련 규제상 유인책으로 중금리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 인정(18년 10월),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해 총당금 50% 추가 적립(17년 6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의 대출 가중치 150%로 확대(16년 9월) 등이 있다.
 6)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부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업체,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 등과 업무 제휴하여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였다.

르게 하락⁷⁾하면서 신규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17년 상반기중 70.8% → 20년 상반기중 23.3%).

담보별 가계대출 증가율¹⁾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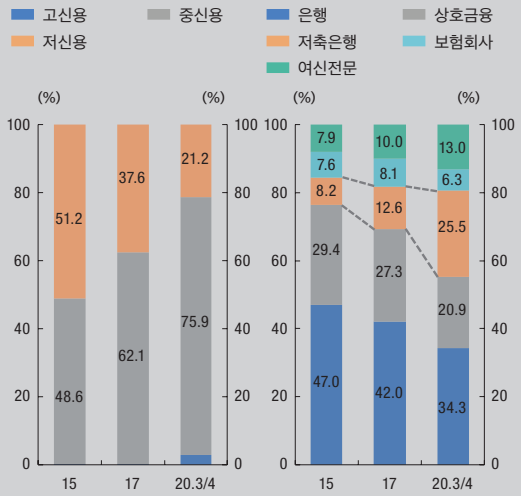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반기중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중에서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였으며(15년말 48.6% → 20년 9월말 75.9%), 전체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 3배 가량 크게 확대되었다(8.2% → 25.5%).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¹⁾ 비중 / 업권별 중신용자 신용대출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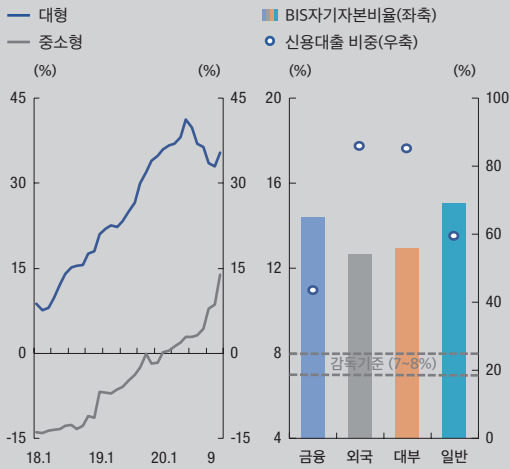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축은행 규모별로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이 가계 신용대출의 94.9%를 차지하며, 특히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이 전체 신용대출 증가세를 견인⁸⁾하였다. 이들 대부·외국계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비중(85.6%)이 크게 높고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⁹⁾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20년 9월중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6.8%로 최근 5년간 8.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은행, 상호금융, 카드는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8) 전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월말 86.2%이다. 2016년 1월~2020년 9월중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8.9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신용대출 증가액(12.1조원)의 73.2%를 차지한다.
9) 대부·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9월말 12.8%로 여타 대형 저축은행(14.6%)이나 업계 평균(14.6%)에 비해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산규모별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¹⁾

소유구조별 가계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및 BIS비율²⁾



주: 1) 전년동기대비, 대형 저축은행은 2020년 9월말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 2020년 9월말 기준, 일반계는 최대주주가 개인 및 비금융법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2020년 9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3.50%로 전년동기대비 0.43%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신용대출은 3.64%로 같은 기간중 0.65%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담보별 가계대출 연체율¹⁾

	2018년		2019년		2020년	
	3/4	4/4	1/4	2/4	3/4	3/4
가계대출 전체	4.65	3.92	3.58	3.83	3.41	3.50
신용대출	6.27	4.29	3.79	4.08	3.42	3.64
주택담보대출	1.76	2.92	3.04	3.25	2.86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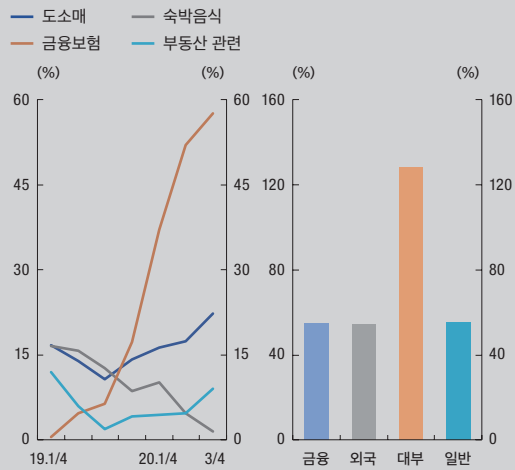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PF 대출 증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2020년 9월말 4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체 등 금융·보험업 대출¹⁰⁾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57.6% 급증하여 같은 기간중 기업대출 증가액(+5.5조원)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대부업 계열인 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업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128.1% 급증하였다.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저축은행은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설정한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권의 LTV 규제한도를 초과(20년 2월말)하였다.¹¹⁾ 이는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 증가율¹⁾

저축은행 소유구조별 금융·보험업 대출 증가율²⁾



주: 1)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관련업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준
 2)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2020년 9월말 금융·보험업 대출잔액은 7.1조원으로 기업대출(41.1조원)의 17.2%를 차지한다.

11)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금융권 LTV규제 우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한 대부업체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의 경우 사실상 저축은행이 원주주에게 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2020년 9월 2일 저축은행앞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발한 바 있는 부동산PF 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¹²⁾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말 PF대출 규모는 6.8조원으로 2011~14년중 대폭 감소¹³⁾하였다가 2015년 이후 연평균 23.1%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 대비 PF대출 비중도 9.3%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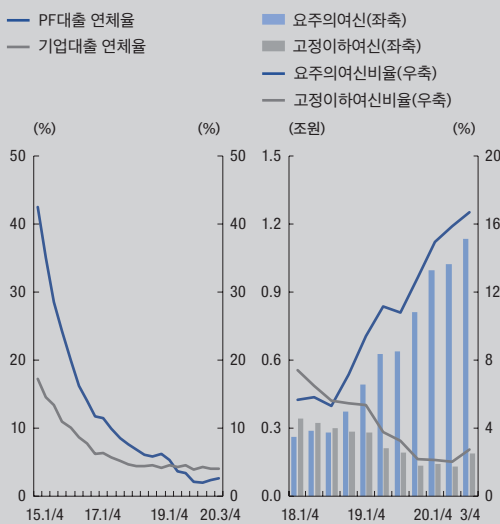
한편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0년 9월말 4.07%로 전년동기대비 0.5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은 2.56%로 같은 기간중 0.87%포인트 하락하였다. 다만, 부동산PF 여신 중에서 요주의여신이 2020년 9월말 1.1조원으로 2018년말(0.4조원) 이후 빠르게 증가¹⁴⁾함에 따라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 확대

지방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세가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¹⁵⁾이며 수익성, 건전성 등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방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20년 1~9월중 1.3%(연율)로 최근 수년간 하락한 반면, 연체율은 2018년 이후 상승 전환하였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 부진은 지역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는데, 특히 2018년 이후 기업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관련 업종¹⁶⁾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4.8% → 6.3%). 지방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개선되었으나(16년말 14.2% → 20년 9월말 15.5%) 업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며 지방 저축은행의 대부분은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형 저축은행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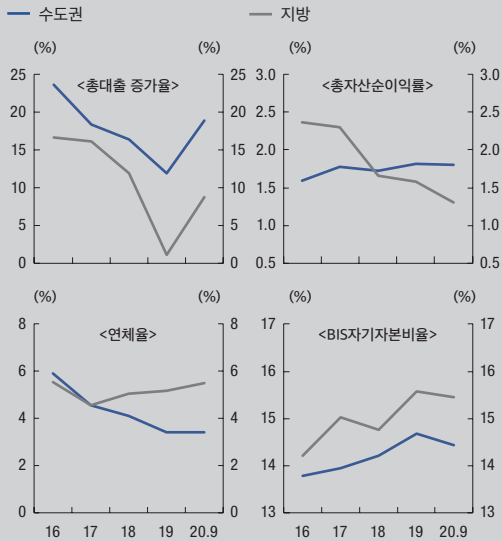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¹⁾ 부동산PF 요주의여신비율¹⁾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2)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거치면서 총 여신의 PF여신 한도 축소(30% → 20%), 차주 자금으로 사업자금의 일정 비율(20%) 이상 조달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사업성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 13)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말 12.3조원에서 2014년말 2.1조원까지 감소하였다.
- 14) 부동산PF 총 여신의 요주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중 7.2%에서 16.7%로 9.5%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부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에 따른 사업성 평가등급 하향, 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5) 수도권 저축은행의 대출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반면 지방 저축은행은 8.7% 증가에 그쳤으며, 지방 저축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말 20.8%에서 2020년 9월말 16.9%까지 하락하였다.
- 16)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비중은 45.0%이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동 비중은 47.1%이다.
- 17) 2020년 9월말 지방 저축은행의 업체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소 9.9%에서 최대 44.3%이며 자기자본 규모(평균 545억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26.6% 수준이다.

지역별 저축은행 경영현황¹⁾



주: 1) 총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총자산순이익률은 누적 분기의 연율 환산, 연체율 및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있으므로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PF 관련 익스포저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¹⁹⁾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요주의 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급이 가계부채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시사점

그간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저축은행의 대출이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본비율도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건전성도 양호하다. 특히 중금리 신용대출의 활성화는 저축은행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등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최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리스크 요인¹⁸⁾이 될 수

18)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기준) 비중은 2020년 6월말 23.8%로 은행(3.4%), 상호금융(5.3%), 보험회사(7.1%), 여신전문금융회사(13.3%)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 변화의 영향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클 수 있다.

19) 2011년 2/4분기말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당시 PF 관련 익스포저(전체 대출 대비 비중)는 20.3%에 달하였다.